

2008년 4월 13일

# 시대의 표적들

말씀: 마16:3

요절: 마16:3

오늘은 “시대의 표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 즉 말세라고 진단합니다. 이는 신자나 불신자나 매 한 가지입니다. 저는 불신자들이 신문이나 T.V를 볼 때마다 “말세다, 말세”라며 혀를 차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흉악한 살인 사건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등을 접할 때면 그들은 ‘말세’라고 외칩니다. 실업률 증가나 전쟁 위기, 기타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떨어지는 도덕관, 인간성의 상실, 죄들을 볼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모두 최악에 대한 심판 즉 세상의 멸망을 본능적으로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 너희 위선자들이, 너희가 능히 하늘의 생김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마16:3b)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문이나 T.V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정확한 날짜와 시각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 도전했고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성도들을 미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맞은 예가 없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나 성경을 통달했다는 이들이나 나름대로 주님이 오실 날을 짚었지만 그 날들은 어김없이 빗나갔습니다. 주님은 그 날과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1:7b)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성도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탐험가들이나 과학자들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 연도와 일자를 계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시기, 날과 시각’은 알지 못하게 하셨고,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징조’입니다.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 1. 지식의 증가(단12:4)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니엘12:4을 보십시오. [오 다니엘아, 오직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이 말씀들을 닫아 두고 이 책을 봉인(封印)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겠고 지식이 증가하리라.](단12:4). 마지막 시대는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누구나 이전 어느 시대보다 갑자기 지식이 폭발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전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중세나 300년 전이나 사람의 운송 수단은 동일했습니다. 옷짜는 방법이나 농사 짓는 기술이 동일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 역시 동일했

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변해도 바뀌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근세부터 지금까지는 하루가 다르게 신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음질합니다. 여행객 수는 이전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운송과 통신 수단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나온 것은 수천년의 기술 축적으로 이루어진 진화,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대부분이 200년 이내에 모두 개발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 혁명, 정보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지금이 말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 2. 비웃는 자들(벧후3:3-4).

이 시대의 표적들 가운데 또 하나는 ‘비웃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을 비웃는 이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의 증가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각종 기구들이 발명될 때마다 인간들은 스스로 높아져 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바다 속에는 해저 터널을 뚫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없는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지금처럼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진화론, 공산주의, 유물론, 정신분석학, 상대성 이론 등 출현하는 과학과 철학은 모두 성경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고등 교육을 받은 자들마다 성경을 신화나 고대 전설을 수집해 편집한 정도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하니](벧후3:3-4).

우리는 주변에 조롱하는 이들을 넘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으로 창조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휴거, 부활, 재림 등의 교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만물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외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신자들은 광신자들이란 비웃음을 삽니다. 이런 비웃는 자들이 넘치면 넘칠 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표적됨을 명심하십시오.

## 3. 배교(Apostasy).

우리는 모두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근본주의자들’, 순수한 복음에 입각해 산다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을 믿습니까?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자신들이 입맛대로 변개해 놓은 성경을 말합니다. 영감있고 오류없는 최초의 원본 외에는 모두 다 약간의 오류가 있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영감과 완전성에 대한 믿음을 버린 채 ‘근본, 보수, 복음’을 외치는 이들이야말로 ‘배교한 기독교’의 한 단면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교회들이 배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본주의와 타협하고 세속주의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세상의 각종 관습과 풍습이 교회 내에서 성경의 전통인양 행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이스터를 행하면서 ‘근본, 보수, 복음’을 외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背敎)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살후2:3). 배교하는 일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직전의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징조를 통해 때가 심히 가까움을 알아야 합니다.

#### 4. 거짓 교사들(벧후2:1-2).

시대의 표적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짓 교사들의 출현입니다.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시키고 ‘사람의 아들 예수’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의 가치를 없애 버립니다. 기독교 인본주의를 걷는다는 이들이 모두 그런 자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각종 이적들과 표적들을 신화나 비유로 해석해 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영벌(永罰)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벧후2:1-2). 불행하게도 어릴 때는 성경을 믿다가 커서 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무신론자요, 불신론자가 되어 ‘거짓 교사’로 교회에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줍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과 감성에 먹혀들도록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허탄한 이야기로 돌이켜 버립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돌아서리라.](딤후4:3-4).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자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와지만 죄를 회개하는 일에서 돌이켜 자신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죄의 찔림을 받는 대신 마음의 위안과 심적 완화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릅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설교,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는 가르침에 저항하거나 대적합니다. 대신 듣기 좋고 고상한 것, 뭔가 새롭고,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는 유익한 내용, 감동과 흥밋거리만 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 목전에 있다는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 5. 심령술(딤후4:1).

마지막 시대에 점점 성행하는 한 가지는 마술, 심령술, 점성술, 점집, 텔레파시 등과 같은 것입니다. 문명이 개화되고, 사람들이 계몽되면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점집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점을 봐주는데 그 시장이 무려 몇 조원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믿음에서 떠나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딤후4:1). 인도의 요가가 미국에서는 스포츠처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보다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가 훨씬 많습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수보다 교회를 다니다 떠나는 이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워지는 교회의 수보다 문을 닫는 교회의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기독교의 쇠퇴니 부흥의 퇴조니 하는 진단을 내리고 원인을 찾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표적이란 사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가수들은 음반을 취입하기 전에, 실업가들은 사업을 시작하면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고, 영화인들은 영화를 찍기 전에 관련자들이 마귀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을 자주 보

니다. 지금 우리는 돈만 된다면 누구에게라도 기꺼이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 6. 위험한 때(딤후3:1-5).

성경이 말하는 위험한 때란 이런 것입니다. [또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러니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타고난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임이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딤후3:1-5). 우리는 연일 이런 날들의 연속이란 점을 생생하게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어떤 이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인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자애와 자존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차례대로 모든 말씀들을 다 주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험한 때’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대의 표적들을 정확히 분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 7. 땅에 쌓인 보물들(약5:1-4).

일찍이 지금처럼 자원이 풍부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원이 있어도 극히 일부만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 속이든 바다 속이든 자원이란 자원은 모두 캐내어 팔고 삽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성공이요, 삶의 목적인 줄로 압니다. 재화를 얼마나 모았는가?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 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하며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詐欺) 쳐서 감추어 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약5:1-4). 우리는 이런 시대의 표적들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듣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삶을 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신문에는 연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성공담이 나옵니다. 지금은 보물 쌓기 경쟁 시대입니다. 경제가 약간만 나쁘면 다른 어떤 가치도 다 묻혀 버립니다. 반면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용서받습니다. 언제나 돈이 제 일의 가치가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입니다.

#### 8. 라오디게아 교회(계3:14-22).

교회의 모습 역시 시대의 표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서 문 밖에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없고 대신 사람들과 그들은 낸 헌금만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의 권리만 있지 주님의 권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운영되고, 말

숨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이라면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 9. 무화과 나무의 표적

이스라엘은 언제나 시대의 표적이요, 예언의 등불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 한 국가가 온 세상에 표적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32-33).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꽃이 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예 표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총 한방 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되찾고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은 역사학 자들에게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두 놀랄 일입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 도성이 이 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면서도 아직도 영토의 극히 일부 분과 예루살렘의 1/3만 차지했을 뿐입니다. 아직은 연하고 잎사귀를 낸 정도입니다. 그러나 늘 중동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 때를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 악하고 거기에 성전이라도 짓는 날이면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이 곧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0. 노아의 날들(눅17:26-30).

주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날들에 비유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 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눅 17:26-27). 노아가 의를 전파했을 때, 주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언제까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 은 심판이 임박한 순간까지 어떤 징조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쟁이들이나 미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나 철학자들이나 그 누구도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믿는 이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 재림, 지옥, 심판 등에 대해서 아 무리 선포해도 듣는 이가 없습니다. 들어도 믿는 이가 없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바쁘게 일상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 즉 주님의 경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잊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모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여유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주님을 경 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 뒤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교과서를 안 읽으면 난리가 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을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한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 습니다.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일이 풍족한 시대는 노아의 때와 말세 때 뿐입니다. 한국의 지금 아이들 은 비만으로 걱정합니다. 먹는 음식보다 버리는 음식이 더 많습니다. 입에는 종일 먹을 것이 달려 있고, 손에는 언제나 마실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도 그랬 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 처럼 가게마다 식료품이 넘치는 시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의 많은 이들이 주리고 있습

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말세의 표적입니다. 예전에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식장은 물론이고 해변이나 강가, 산이나 들에서도 결혼하는 남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결혼하는 것으로 모자라 재혼에 삼혼이 허다합니다. 동거하며 친구들끼리 모여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가 가족, 친지들 불러 모아 결혼식 치르고, 후에 마음 맞는 사람 만났다고 은밀하게 결혼식 올리고,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결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워낙 결혼과 이혼이 쉬운 시대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에 그러했고 말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모습이 바로 홍수 직전 노아의 날들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1. 롯의 날들(눅17:28-30)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치고, 소돔에 들어가 재판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혼은 고통을 받았지만(벧후2:6-10)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도로서 증거의 능력을 잃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구하려 했을 때 소돔 사람들은 롯을 완전히 무시했고,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했을 때는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과 타협하긴 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며 간증을 잃어 버린 상태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어떤 말도 무시를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농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롯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롯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과는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행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눅17:28-30). 도시에는 계속 집과 상가, 운동장, 극장, 놀이시설, 공원 등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살고 팔았습니다. 생산품이 많고 상거래가 활발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차를 몰고 도시를 한 번 돌아 보십시오. 애들은 손에 먹을 것, 마실 것을 잡고 있습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지어내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뭔가를 사고, 파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란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아무런 깨우침이 없다면 그는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개인: 표적들...늪음, 약함, 병들---죽음.

시대의 표적들은 우리의 기다림에 경중을 올리며,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의인들의 영과 혼은 부활의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그 위에 내려진 저주가 견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그 다가움을 알 수 있도록 시대의 표적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들을 보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로 자신을 단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Non-Series- 시대의 표적들